

- 1.종교다원주의 배경
- 1.동성애 반대
- 1.차별금지법 반대
- 1.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227호
7월 8일
2023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관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동성애악법저지’ 한국교회 공동대처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지켜야”



대표회장
한익상 목사



상임회장
박만수 목사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이하 한반교연) 3주년 기념식이 지난 6월 29일(목) 오후 2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관 5층 성전에서 ‘동성애 악법저지 한국교회 하나 되어 끝까지 싸운다’라는 주제로 열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소중한 가정과 교회를 지켜내고, 다음세대 청소년을 보호하며, 진리의 말씀과 신앙의 자유를 사수하기 위해 더욱 한써 싸울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배는 한철희 목사(기감 동성애대책위원)의 인도로, 홍영태 목사(기감, 바성연 운영위원장)의 대표기도, 박한수 목사(예장 통합, 동성애대책위원)의 설교, 박만수 목사(예장 개혁신당, 한국교회보수연합 대표, 한반교연 상임고문)의 축도, 박운순·성승식 목사의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박한수 목사는 설교를 통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어지는데, 이것이 서구사회의 과정이었다. 결국 그 뒤에는 성 혁명주의자들이

도사리고 있고, 신 자유주의 물결이 그 뒤에 자리 잡고 있다”며 “이것은 결국 사회·공산주의로 가는 것이며, 최대의 적은 사탄이 자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이 구조를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야 한다.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닌 영적인 문제”라며 “그리스도인,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서서 외쳐야 하며 행함 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계속해서 행동으로 외쳐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은 차별금지법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우군을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 중요한 것은 마귀는 분리시키고, 하나님은 연합 시킨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행동해야 한다. 지금까지 일선에서 싸워 오신 목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 주님 오실 때까지 지지하고, 이 거룩한 운동들이 널리 퍼지고, 더 강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서 축사를 전한 홍호수 목사(거룩한번파제 사무총장)는 “기독교를 위해 악법을 막는 일이 중요한 이 때에 한반교연이 중요한 단체라고 생각하며, 교단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이 일을 할 때 더 큰 효과와 함께 더 큰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홍 목사는 이어 “거룩한 번파제라는 주제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받았던 응답이 바닷속에 던져진

테트라포드(방파제 또는 방조제)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콘크리트 블록)였다”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 실의에 빠졌을 때, 제 자신이 테트라포드임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아울러 “수많은 테트라포드와 같은 헌신자들로 인해 한국을 악법으로부터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 지켜왔다”며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테트라포드라고 생각한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충실히 감내하며 오셨다. 앞으로도 다음세대인 우리 자녀들을 지키는 테트라포드와 같은 거룩한 방파제의 역할을 끝까지 할 예정이며, 모두가 연합하여 이 일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다시 한번 3주년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교연의 결의문 낭독이 있었다. 한반교연은 “지난 3년 동안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 남인순·정춘숙 의원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김영배 의원의 주민자치기본법, 서영교 의원의 마을 공동체 및 지역 사회혁신활성화 기본법, 박주민 의원의 평등법 등 온갖 악법들을 저지하기 위해 한반교연은 매주 규탄 집회와 포럼을 하며 악법의 폐해를 알렸다”고 했다.

이어 “한국교회의 모든 교단은 나라와 교회에 다친 심각한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동성애와 반기독교적 악법에 대응하는 특별기구를 구성하여 지구대단민국의 전통적인 가치와 성경에 기초한 가정을 세워 나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소중한 가정과 교회를 지켜내고, 다음세대 청소년을 보호하며, 진리의 말씀과 신앙의 자유를 사수하기 위해 더욱 한써 싸울 것”이라며 “항후 어떠한 난관이나 핍박에도 결코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며, 불법을 유도하는 악한 세력과 끝까지 믿음으로 맞서 싸워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후에는 한반교연 대표 한익상 목사의 각 교단 사역 소개와 감성찬 목사의 특강, 유수열 목사의 인도로 동성기도가 진행되었으며 한국교회 보수연합 대표회장 박만수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NCKK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교회 정서 확산”

임성모 박사, 기감 중부연회 WCC·NCKK 대책 세미나서 지적

기독교대한감리회(감목회장 이철) 중부연회(감독 김찬호)가 지난 4월 연회와 이후 실행부회의에서 잇달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K) 및 세계교회협의회(WCC) 탈퇴를 결의한 가운데, 12일 오후 인천 만수교회에서 ‘교회 입장에서 바라본 WCC·NCKK 대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교단 차원의 분명한 입장을 촉구했다.

임성모 박사 “WCC는 ‘타종교의 구원 주장 NCKK는 다원주의와 동성애 차별금지법 저지’ WCC와 NCKK에 대한 복음적 신학자의 관점”을 주제로 발표한 임성모 박사(웨슬리안조직신학연구소)는 두 기관을 평가하며 NCKK에 대해 보다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WCC가 타종교와의 대화를 뛰어넘어 타종교의 구원을 주장한다면, NCKK는 그 같은 다원주의는 물론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드러내고 지지해 왔다는 것이다.

임 박사는 “WCC는 더 이상 타종교를 선교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신앙고백을 버리지도 않는다”며 “정리하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만, 타종교도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쓰신다’는 관점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모순처럼 보이는 이 입장은, 구원론에 있어서 칼 라너로 대표되는 포괄주의(Inclusivism, 즉 타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구원의 도구 역할을 한다는 주장)와 존 허크로 대표되는 다원주의(pluralism, 즉 산 정상으로 오르는 길이 여럿이듯 신성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다는 주장) 그 사이에 위치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NCKK에 대한 “공식적으로 타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선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NCKK 이름으로 나온 책자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며 “따라서 타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는 NCKK의 변명은 궁색하게 들린다”고 했다.

특히 임 박사는 “NCKK는 동성애를 노골적으로 찬성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NCKK가 △2021년

인권상을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 수여한 것 △2020년 4월 22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임 박사는 “NCKK가 70년대 80년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바는 참으로 크다. 이 점에서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그러나 그 이후로 진보적인 인사들이 장악하다 보니 교회 연합과 교회를 섬기기보다는 그들의 어젠다에 더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급기야 소수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동성애를 지지하기까지 한다. 복음적인 교회들과 언약자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는 “타종교에도 기독교적 구원이 있다는 의미에서의 종교다원주의 주장, 그리고 동성애에 옹호는 성경을 따르는 교회가 용납할 수 없다”며 “NCKK가 달라지지 않으면 감리교단은 탈퇴해야 한다는 것이 작년 행정총회, 금년 중부연회와 총정연회에서 드러난 교회의 정서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들의 결의에서 명백히 드러났다”고 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



조용목 목사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삼서 2절)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에 대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확실한 많은 증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위한 수많은 명령과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삼가고 물리치고 버려야 할 것들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유지해야 하는 것들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가운데 레위기 12장 3절에 보면 남자 아이는 출생한지 팔일 만에 양피를 베도록 하였습니다. 달리 말하여 할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할례는 남자 아이의 생식기의 피로 끝을 베어내는 의식입니다. 할례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은 최초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창 17:9~14)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 된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한써 지켜왔습니다. 출생한지 8일에 할례를 받게 하였습다. 의학적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태어난 지 8일 되는 아이는 통증을 많이 느끼지 않으며, 피도 금방 멎고 상처도 속히 아문다고 합니다. 피를 응고시키는 비타민K가 생후 7일에 가서야 정상 분량에 이르러 응혈소 수치가 100%로 안정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 된 것을 표시하는 상징성 외에도 질병을 예방하는 의미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900년 초 외인버그 박사가 뉴욕에서 한자들의 기록을 연구하다가 유대인 아저들에게는 감염된 사례가 거의 없는 질병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서 할례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포경인 남자의 경우 정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세균 감염의 원인 제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자 아이가 성장하면서 대다수는 저절로 포경이 해결되기 때문에 구태여 어릴 때 반드시 포경수술을 할 필요성은 없지만 할례는 예방 의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현대 의학이 밝혀낸 것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남자 아이의 할례와 동시에 아기를 출산한 산모에 대한 정결 규례

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산한 여인에게 부정할 기간을 설정하셔서 비록 출산한 여인의 종교적, 사회적 특권을 정지시키셨는데 그 이유가 실제로는 산모의 건강을 위한 자상하신 배려입니다. 산후조리를 위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금욕하여 세균 감염 방지가 되도록 하고 또한 아기에게 감염 방지가 되도록 하신 배려입니다.

둘째로, “목에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목에 죽인 동물을 멀리하라는 것은 그러한 동물을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피를 멀리하라는 명령 역시 피를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레위기 3장 17절에 기록되기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을 주신 것도 사람의 건강을 위한 자상한 배려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혈액검사를 하면 건강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몸 안에 침투한 균이 혈액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짐승의 피를 마시는 것은 건강에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노루나 산돼지를 사냥하여 그 피를 마시면 힘이 솟아나는 이유는 사냥 당한 동물의 피 속에 아드레날린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공포와 생명의 위기를 당하게 된 동물의 부신에서 아드레날린이 대량 분비됩니다. 그런데 이 아드레날린이 T세포를 파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하여 저항력이 떨어진 몸이 감염되면 발병하게 됩니다. 현대 의학이 이런 사실을 알아내기 3천여 년 전에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율법으로 엄격히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되어도 믿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지혜롭고 복 있는 자입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임 박사는 “NCKK는 교회를 주도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소외되고 있다. 교회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반대하는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감리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1) 탈퇴 2) NCKK가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확약 가운데 탈퇴하지 않는 것 3) NCKK에 진보주의자들만

파송하지 말고 복음적 신앙으로 목회하는 분들을 보내는 것을 제시했다.

임 박사는 “중지를 모아 감리교회 교단적 입장을 분명히 정해야 할 때”라고 했다.

한편 임 박사에 이어서 이상윤 목사(감리교미래정책연구원 원장)가 “NCKK 탈퇴와 감리교 신학의 특징”을 주제로 발표했다. 코투©

72차 총회 고시위원회 1차 회의

2024년도 목사고시일정 확정

교단 교사위원회위원장 이석호 목사)는 지난 6월 22일(목) 오전 11시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72차 총회 고시위원회 1차 회의를 갖고 2024년도 목사고시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고시위원장 이석호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어 고시위원 이문근 목사의 기도, 이석호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역자들이 될 것”을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

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했다. 이석호 목사는 설교를 통해 사역자로 세움받은 일꾼들은 주님 말씀에 절대순종의 자세로 임하여 함을 강조하고 이같은 사역자들이 세워지기를 강조했다.

곧바로 이어진 회의에서는 목사고시 세부일정을 확정했다. 목사고시 서류접수 마감은 2023년 8월 31일(목)까지이며 동년 9월 7일(목) 서류심사, 9월 29일(목) 오리엔테이션, 목사고시는 2024년 1월 29일(월), 30일(화) 양일간 치러진다. 자세한 세부일정은 본지 1227호 4면에 게재된 목사고시 세부일정 광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생활동반자법 반대’ 한기총·한교연 성명

“‘두 성인’을 가족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은 동성혼 합법화 의도” 비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와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이 6월 26일(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적극 반대”한다면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지지 않은 두 성인을 ‘가족관계’로 인정하는 소위 ‘생활동반자법’은 결국 동성혼을 우회적으로 합법화시키겠다는 꿈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남녀의 경우 사실상 제도로서 이미 법률혼가정에 준하는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남녀가 아닌 두 성인을 가족관계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생활동반자법’은 동성혼을 합법화시키려는 의도라는 것. 이들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갑론을박이 있었다. 아무리 사회 공동체의 구조가 변한다고 하나, 남녀의 결합으로 이뤄진 가족의 개념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며 “더욱이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출생률 감소’ 등을 이유로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동성혼은 출생률이 0’ 아닌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유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서울시가 서울광장에서 ‘퀴어축제 불허’라는 바람직한 결정을 내렸음에도 퀴어행사 주최측은 당일 인근에서 퀴어축제 행사와 퍼레이드를 강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퀴어 행사는 하되 대중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도로점용불가라는 대구시 측과 마찰을 빚는 바 있다”면서 “동성애는 이미 소수가 아니라 집단화되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과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성 욕구를 거리낌 없이 표출하고 있다. 또한 인권의 추세를 채워 언론들은 제대로 된 비판도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도 한국교회는 국회 앞에서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를 아나고 있으며, ‘포괄적차별금지법반대, 동성애퀴어축제반대, 성학명교육과정반대, 국가인권기본계확반대, 학생인권조례반대’를 위한 ‘거룩한 방파제 국민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자유를 넘어 방종까지도 시대 흐름 혹은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물결 앞에 한국교회는 방파제가 되어 막아내고 또 온 몸으로 부딪혀 저항할 것이다. ‘죄’는 ‘죄’로 인정하고 용서받아야 하는 것이지, ‘죄’가 ‘선’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울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과 한국교회는 앞으로도 동성애, 동성혼을 적극 반대하고, 동성애, 동성혼으로 포장된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개입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나갈 것이며, 인권으로 포장된 동성애 관련 조례, 교서 등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천명한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위해 잘못된 것과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이롭다고 건강한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개혁신교단협 외 제73주년 6.25 상기 연합예배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 북한의 핵 야욕 분쇄, 평화 기원



개혁신교단협 대표회장 양정섭 목사

사단법인 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대표회장 박형렬 목사)는 지난 6월 23일(금) 여전도회관 루이스기념관에서 제73주년 6.25 상기 연합예배를 드리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북한의 핵 야욕을 분쇄하고 세계평화를 이루어 가는데 한바탕 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사단법인 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대표회장 박형렬 목사)를 비롯해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신교단협의회(대표회장 양정섭 목사)와 사단법인 세계개혁신교회연합회(총재 김권현 목사)가 연합하여 개신교단 임원 및 회원들이 참석해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연합예배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신교단협의회 대표회장 양정섭 목사의 사회



로 예정개혁신교회 동아시아선교회 대표 박지원 목사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개혁신교단의 특송에 이어 박형렬 목사(사단법인 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박 목사는 수 1:1-11 ‘공동체 영성으로 평화’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대한민국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과 애국심으로 무

장해서 ‘절절한 나라 사랑’의 실천으로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에 충성해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양정섭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기독교 사학의 자율성 회복 방안 논의

사)한국교회법학회, 제31회 학술세미나



사)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학회장 서한제)가 ‘기독교 사학의 자율성 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31회 학술세미나를 지난 6월 22일(목) 사랑의교회에서 열었다. 기독교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정책, 법을 주제로 발제한 박상진 교수(영로회신대학교 기독교교육학)는 기독교사립학교의 자율성의 근거를 조망하면서, 이를 위축시

키는 교육정책과 법을 분석하며 대안을 모색했다.

박 교수는 먼저 “한국의 기독교 선교는 경신학교와 배재학당 등 기독교학교로부터 시작되어 한국에는 408개교의 기독교학교들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공교육 체계 속에서 기독교학교는 본래의 건학이념대로 학원학교와 기독교적 종교교육을 제대로 실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기독교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있는 요인들이 평준화 정책, 사립학교법 개정, 종교교육과정, 자사고 폐지, 고교학점제, 사학공영화 정책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해결방안으로 “법과 제도를 새롭게 정비하고, 교육현실을 개선하고 임원화하며, 기독교학교 건학이념 구현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기독교학부와 학생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방안으로서 기독교사립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주장해야 하며, 기독교 사학의 부정적 이미지를 변화시켜 긍정적이로 친화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사)한국기독교교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박영호 목사)는 지난 6월 19일(월) 오전 11시 서울시 동대문구 전호대로 소재 연악교회(담임 박영호 목사)에서 협회 임원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73회 6.25 기념예배 및 구국

기도성회를 갖고 나라 위해 피 흘린 호국선열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1부 개회예배는 사무총장 김준희 목사의 사회로 상임회장 김천기 목사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찬양사역자 선 에스더 목

사·구속사총회 정순정 목사의 특송, 예나우함 조사무엘 목사의 선교보고, 대표회장 박영호 목사의 시 3:1-8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박영호 목사는 설교를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은 선민 한민족을 잊지 않으시고 지켜주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6.25 73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전 세계에 3만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며, “수많은 환난과 곤고, 기근, 필박의 위험을 당하면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지평해 주셔서 그 사랑을 보증해 주셨다.”라고 말했다.

제2차 다문화가정 초청 부부워크숍 개최

세기총, “긍정적 다문화시대를 열어가자”

(사)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기현 장로,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이 세기총)는 지난 6월 11일(주일) 오후부터 14일 오전까지 제주도 오리엔탈호텔 등에서 ‘제2차 다문화가정 초청 부부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필리핀에서 온 다문화 가정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개회예배는 성두현 목사(세기총 공동회장)의 사회로 준비위원장 이재희 목사(대한민국아주민주회망봉사단 단장)의 환영사와 대표회장 전기현 장로의 대회사 있었다.

대표회장 전기현 장로는 대회를 통해 “다문화라는 것은 문화가 다르며, 생활이 다르며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며 “부부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며 그래



야 ‘살림(평화)’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전 장로는 “대한민국은 2021년 기준으로 다문화가구가 34만 6천여 가구가 되며 그중 결혼이민자 가구가 82.4%가 되고, 기타 귀화자 가구가 17.6%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장래는 다민족에게 달려있다”라며, “이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함께 즐기며 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기총 후원이사장 송지성 선교사의 기도

에 이어 이재희 목사(세기총 상임회장)가 ‘연제나 함께하는 부부(행 18:1-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재희 목사는 설교를 통해 “다문화가정은 서로의 문화가 다르고, 믿음이 다르지만 부부라는 이름으로 아름다운 공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여진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는 예수님을 믿음껏 만나고, 체험하고 가는 자’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귀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 평화 종식 기원

한국교회봉사단 ‘2023 강릉세계합창대회’에 우 합창단 초청

한국교회봉사단(이하 한교봉)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속한 종식과 평화를 기원하는 한국교회의 기도와 소망을 담아 ‘2023 강릉세계합창대회’에 우크라이나 보그니 소녀 합창단 40명을 초청 참여하데 협력한다.

7월 3~14일 강릉에서 진행되는 이번 합창대회는 “모두를 위한 평화와 번영”을 주제로 34개국 32개 합창단이 함께한다. 보그니 소녀 합창단은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의 현재 상황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의지로 이번 행사 참여를 결정했다.

한교봉은 대회 전날인 7월 2일 주일, 새은혜교회(행형택 목사)에서 보그니 소녀 합창단 초청예배를 드린다. 이날 예배에는 우크라이나 보그니 소녀 합창단의 특별찬양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7월 12일 폐막 전야제 음악 축제가 강릉중앙감리교회에서 열리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보그니합창단, 콘스탄틴, 박희정, 강

찬, 박요한, 최슬기, 원이하, TR워십밴드, TR크루, 심상충 찬양 사역자들의 특별출연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한교봉은 7월 4~7일 폴란드 크리쿠프에서 열리는 제14차 한폴 목회자 아카데미를 후원한다. ‘회복 그리고 나눔’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아카데미에는 유럽 목회자, 우크라이나 교회 지도자, 우크라이나 선교사 120여 명이 참여하고 한교봉 대표단장인 김태영 목사가 개회예배에서 위로와 회복을

담은 설교말씀을 전할 예정이다.

한교봉에서는 본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우크라이나 선교사에게 태블릿 PC를 후원하고 함께 온 선교사 가정들을 위한 생활물품과 어린이 교육키트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7월 4일에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4개월간 1만 2000여 명의 폴란드 바르샤바 외곽지역의 피난민을 지원했던 한국교회 희망봉사단 1호를 우크라이나 교회로 이관하는 전달식도 함께 진행된다.



한국목회자섬김선교회 창립예배

회장 권영식 목사, “목회자 섬김에 최선을 다할 터”



한국목회자섬김선교회(회장 권영식 목사)가 지난 6월 19일 오전 11시 30분 강원도 영월군 소재 열방의빛교회에서 창립예배를 드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한 목회자들의 돌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날 창립예배는 김동명 목사(매송교회)

사회로 조용식 목사(뉴그레이스교회)의 기도, 박현진 사모(주예수소망교회)의 특별찬양, 김형제 목사(한국다움세대문화협회 이사장)의 마 10:40~42 말씀을 본문으로 ‘섬기는 자’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김 목사는 “우리가 타인을 위해 섬기고

순종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라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하신 말씀처럼 섬김의 도를 실천하자”라고 강조했다.

김일춘 목사(원주세로열림교회)의 축사, 조직발표, 임원과 지부장 임명에 이어 인사말을 한 권영식 목사는 “예수님도 섬김의 정신을 실천하셨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목회자들을 섬기겠다. 기도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회장 권영식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각담의 시간도 갖고 선교회의 발전책을 논의했다.

서울장애인합창예술제 개최

국장협, 장애인합창 발전과 장애인식개선에 기여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중앙회(이사장 최광영)가 7월 11일(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장애인합창예술제’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국민의힘 이재익 국회의원, 송석준 국회의원, 김승수 국회의원, 서정숙 국회의원, 이종성 국회의원, 김예지 국회의원, (사)한국장애인음악협회가 공동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한국수출입은행, 사랑의열매를 비롯하여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KBS, YTN, 기독교TV, 복지TV, 국민일보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서울장애인합창예술제는 제31회 세계장애인의 날 기념 전국장애인합창대회’ 본



선 출전을 위한 서울지역 예선 대회다. 이번 행사는 서울지역의 장애인합창 발전과 장애인식개선에 기여하고 합창으로 하나 되는 화

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올해 출전팀으로는 골프존파스텔합창단, 담쟁이코러스합창단, 대길푸른초창, 미리클보이스앙상블, 서울푸른매합창단, 아트브윙트콰이어, 어울누리합창단, 코웨이 물빛소리합창단(오퍼처스 소)으로 총 8팀이다.

이번 예술제의 최우수팀은 11월16일(목)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천안예술의전당에서 펼쳐질 제31회 세계장애인의 날 기념 전국장애인합창대회’에 출전권을 얻게 된다. 집행위원장 고재오 상임이사는 “이번 2023 서울장애인합창예술제를 통해 전국장애인합창대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장애인 합창예술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생명의 말씀 ■



정 형 기 목사

· 교단 재판위원장 역임
· 줄거운우리집요양원 이사장
· 자유총일호국동지회 대표회장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성경은 신령해야 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고 정직해야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신 6:18)
정직은 히브리어로 ‘아사르’인데 ‘솔직함, 공정한, 진실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직은 성도의 의무이며, 신앙의 기본이며, 의인의 징표입니다. 또한 사람은 본래 정직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니다.

그러나 국민 4명 중 1명이 기독교인인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정직하게 산다면 바닷물의 0.6%가 물을 정화시키는 것처럼 우리 나라를 얼마든지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길은 무엇

입니까?

1. 거짓증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 하지 말라”(출 20:16)

사람들은 거짓말 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사기는 안되지만 거짓말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말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은 신성모독이며 심판 날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라”(마 12:36)

또 거짓말을 하는 것은 마귀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음으로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요 8:44)

초대교회 성도인 아나니아와 삽나라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땅값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운 생각이 들어 땅값의 일부를 감추고 사도 베드로를 속였습니다.(행 5)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네가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

요 하나님께 한 것이니라”(행 5:3-4)

우리가 기도하다 음성이 들려오면 첫 번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즉시 순종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두 번째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건 우리 자신의 음성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드릴 수 있나? 그래도 순종치 않고 시간이 지나면 세 번째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건 마귀의 음성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나라 부부도 첫 번째 음성에 즉시 순종치 않고 틈을 타다가 결국 세 번째 마귀의 음성을 듣고 거짓말을 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중에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즉시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정직해야 능력이 나타나고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야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시 25:8)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신 6:18)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번제는 짧아지느니라”(잠 10:27)
“여호와 하나님은 해오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를 영화를 주시며 정직이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시 84:11)

여기서 좋은 것은 파라클레토스 즉 성령

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면 성령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직 그 자체이십니다.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살아 하늘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 그럼 어떻게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까?

1)성령의 도우심으로 정직한 영 예수님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시 51:10)

정직한 영은성령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영접할때만 정직한삶을 살 수 있습니다.

2)기도해야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

며. 나로 가난하게 마옵시고.”(잠 30:8)

정직하게 살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정직하게 살 수 없습니다.

눅 18장을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만 신

령하고, 죄를 안 짓고 의무를 다한다고 기도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여 나니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

이다”(눅 18:11)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화 일을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천국에 못가지만 다른 사람까지도 천국 못가도록 방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마 23:13)

반면에 눅 18:13 말씀을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눅 18:13)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만 잘알고 달달 외는 바리새인은 저주를 받고 지옥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 되지 말고 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느끼는 세리와 같은 회개기도를 하는 정직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욕심을 버려야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려고 상대를 속이게 됩니다. 욕심의 결과는 죄요 사망입니다.

정직한 지도자는 3가지에 깨닫아야 합니다. 첫째 돈, 둘째 명예, 셋째 이성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욕심이 거짓과 부정과 부패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정직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말고 거짓증거 하지 맙시다. 정직해야 능력을 받고, 정직해야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직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는 초대 대통령이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를 세운 분에 대한 지 나친 냉소(冷笑)를 버려야 한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평소에는 ‘국민통합’ 아니 ‘국가발전’을 운운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정작 자기들의 비뚤어진 사고의 잣대를 가지고 역사적 팩트마저 덧칠하여 부정하려는 속셈을 드러내는 것이 안타깝다. 이런 식의 반대가 명분(名分)에 맞는 것인가?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들과 달라야 한다. 지금까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하여 홀대했던 과거를 뛰어넘어, 하루속히 초대 대통령이며, 건국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바로 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과 공을 기념하는 장을 만들게 되므로, 역사는 새롭게 평가될 것이며, 제대로 된 역사관이 세워질 것이다. 또 선동에 의하여 갈라진 국민들의 의식도 바르게 수정되리라 기대한다.

동 정

성결대 김상식 총장 마약 퇴치 동참



성결대학교 김상식 총장이 지난 6월 26일(월) 마약 예방 릴레이 캠페인 ‘NO EXIT(출구 없음)’에 동참했다. 김 총장은

나사렛대학교 김경수 총장의 지명을 받았으며, 국제연합(UN)이 지정한 기념일인 ‘세계 마약 퇴치의 날’에 캠페인에 동참하게 돼 그 의미를 더했다.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수원대학교 임경숙 총장과崇仁대학교 박성규 총장을 지목했다.

노먼 응 목사 복음으로 탈동성애



싱가포르에서 탈동성애 사역을 펼치는 싱가포르 3:16교회 노먼 응(Norman Ng) 목사가 지난 7월 1일(토) 서울 보신각에서 개최되는 제8회 홀리 페스티벌을 앞두고 한국교회에 복음으로 변화시킬 것을 호소했다. 그는 “실제로 동성애를 극복한 이들의 이야기가 보다 많이 전해져야 한다.”고 했다.

동성결혼 웹 제작 거부 승소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축하하는 웹사이트 제작을 거부했던 기독교인 디자인사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인정받았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30일(현지시각) 이 사건의 판결에서 “주 민권법에 따라 로리스마스에게 자신의 종교에 반하는 웹사이트를 만들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했다.

대학총장포럼 고신일 목사이사장에



제8회 한국대학총장포럼(회장 정상운 박사)이 ‘오늘의 상황과 한국교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지난 6월 19일(월) 관교우리교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 앞서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고신일 목사(기동교회)가 선출됐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은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역대 대통령이 12분이 있다. 그분들 가운데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 분도 있고, 반대로 부정적 평가를 받는 분도 있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 가운데 기념관이 있는 분은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다.

그러나 유독 초대·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은 없다. 세계 어느 나라치고 자기 나라의 초대 대통령의 기념관이 없는 나라가 있는가? 우리나라에서만도 김구, 안중근 등의 기념관이 있는데, 유독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이 없다는 것이 정상이란 말인가?

왜 그렇게 되어져 왔는가?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기념

관이나 기념물을 세우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독재자’와 ‘친일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대한민국의 완전히 새로 운 형태의 국가를 세운 분을 독재자의 굴레로 씌운다고 그 공로를 덮을 수 있는가? 또 친일 운운하는데, 평생을 독립운동한 분을 친일로 몰아가기에는 (공功)보다 과(過)를 강조하려는 뒤틀린 억지스러움이 돋보이지 않는가?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은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강점을 알고 오랜 동안 전체·왕정 국가로 살아오

던 나라에서, 국민이 주인 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었다. 전에는 백성들을 양반과 상놈으로 구별하여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은 평생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의 정체성으로 세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누구라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또 시장경제 체제를 통하여 자본주의 국가로 만들어 부강한 국가로의 발돋움을 하게 만들었다. 뿐만이 아니라 ‘농지개혁’을 통하여, 소작민들은 평생에 자기 농토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었는데,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주어 자기 땅을 짓고 농사를 짓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이었던

6·25전쟁에서 나라를 지켜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미국과의 〈한미상호보호조약〉을 통하여 오늘날까지도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방을 튼튼히 하는데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였다.

뿐만이 아니라 당시 문맹률 90%에 달하는 것을 학교를 세워 의무교육으로 만들어서 문맹률을 20%로 낮추는 획기적인 역할도 하였다. 나라는 세워졌으나 국민소득 몇 십 불에 불과한 나라에서 자유와 민주, 국가 번영의 기틀을 마련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벗어나야 한다.

부정적 호사가(好事家)들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하여 이것저것 트집을 잡으면서, 그분을 기념하고 추앙하는 것을 극구 반대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1)폐활성물질

1 손상된 신세포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쥐실험)
(*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냄)

2)플라보노이드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 연구논문)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 연구논문)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식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 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 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 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 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바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 연구논문)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월례회 갖고 바른 복음 전파 위해 기도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정기영 목사)는 지난 6월 26일(월) 오전 11시 부산 진구 전포동에 위치한 순복음세움교회(담임 정기영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바른 복음 전파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회계 서미곤 목사(순복음비전교회)의 사회로 김경욱 목사(순복음하늘소망교회)의 대표기도, 최계순 목사(은혜순복음교회)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정기영 목사(순복음세움교회)의 고후 3:10~18 말씀을 본문으로 한 '영광의 사역자들'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계속해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고, 홍찬일 목사(순복음반송교회)



의 헌금기도, 전임지방회장 고영권 목사(순복음한세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정기영 목사의 사

회로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이택규 전도사(순복음반송교회)의 목사 임직 예배에서 만

날 것을 약속하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사명 감당

부산동지방회

부산동지방회(회장 조정화 목사)는 지난 6월 16일(금) 오전 11시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341-2 순복음은혜와사랑의교회 좌천성전(담임 조은혜 목사)에서 새로운 회기 첫 번째 지방회 월례회를 갖고 교단과 지역 교회부흥을 위해 한마음 되어 기도했다.

기도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지방회 총무 조은혜 목사(순복음은혜와사랑의교회)의 사회로 재부 안병섭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에 이어 지방회장 조정화 목사가 왕상 19:4~10 말씀을 본문으로 '로렐나무 아래에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조 목사는 "엘리아가 실의에 빠져 로렐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을때 하나님께서 엘리아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지시고 세미한 음식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일어나 다시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코로나로 많은 성도들이 떠나가고 교회들이 문을 닫는



현실 가운데 좌절의 늪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소리를 듣고 일어서서 다시 주님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자"고 당부했다.

이어 회계 황연선 목사의 헌금기도, 교단

과 지방회 교회부흥 및 교역자의 건강을 위해 합심기도 후 증경지방회장 정영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 정환무 목사가 준비한 기장월전 정아마을에서 맛난 오찬을 즐기며 즐거운 교제를 나눈 뒤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순복음세움교회 이택규 목사 임직예배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정기영 목사)는 지난 7월 2일(주일) 오후 5시 30분 부산 진구 전포동에 위치한 순복음세움교회(담임 정기영 목사)에서 목사 임직예배를 드렸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회계 서미곤 목사(순복음비전교회)의 사회로 지방회 부회장 김경욱 목사(하늘소망교회)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정기영 목사(순복음세움교회)의 었 4:9-15 말씀을 본문으로 '목사의 사명'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2부 임직식은 지방회장 정기영 목사의 사회로 예식사와 서약 후 안수위원장 정기영 목사, 안수위원 조병희 목사, 고영권 목사, 조병희 목사, 한순남 목사와의 착의와 악수레 후, 안수위원장 정기영 목사의 공포와 임직 패수여 순으로 이어졌다.

3부 축하 시간에는 소프라노 남순전(장유동성교회)의 특송, 전임지방회장 한순남 목사(순복음반송교회)의 축사, 전임지방회장 고영권 목사(순복음한세교회)의 권면, 임직자 이택규 목사의 감사 순으로 이어졌다.

이택규 목사는 "오늘의 축복된 자리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교회와 성도님들을 아름답게 섬기겠다"고 전했다.

이어 안수위원장 정기영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월례회 갖고 교단과 지방회 위해 뜨겁게 기도

영남동지방회

영남동지방회(회장 윤득주 목사)는 지난



6월 29일(목) 오전 11시 경남 양산시 교항의 봄 10길에 위치한 생명빛교회(담임 김홍욱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의 발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부회장 김은수 목사의 사회로 회계 황용식 목사의 대표기도, 부회장 김은수 목사의 성경봉독, 총무 오경덕 목사의 고전 2:1-5 말씀을 본문으로 한 '어떻게 순복음...'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어 재부 이종섭 목사의 헌금기도, 전임 지방회장 권점식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서기 성기찬 목사의 회원점명, 지방회장 윤득주 목사의 교단 지방회 보고 및 안건 토의 순으로 이어졌다.

월례회를 마친 후 함께 식사를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4년도 목사고시 공고

2024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 류 접 수 : ① 일시: 2023. 8. 31(목)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 다운로드→ 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 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 지방회임원회 심의→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12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2. 서 류 심 사 : ① 일시: 2023. 9. 7(목) 오전11시 ② 장소: 총회본부 회의실
3. 오리엔테이션: ① 일시: 2023. 9. 21(목)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본부
4. 목사고시료 : ① 납부일: 2023. 8. 31(목)까지 ② 금액: 50만원
③ 입금계좌: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5. 목사고시 : ① 일시: 2024. 1. 29(월)~30(화)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본부
6. 전도사 경력 계산은 만으로 하되, 계산일은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7. 직장파 목사직은 겸할 수 없으므로 직장을 가진 자는 목사고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8. 목사고시 응시 자격은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서류심사 이후에는 목사고시 서류일체와 고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김병욱 고 시 위 원 장 목사 이석호
총 무 목사 정진균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이영진

한국 교회와 함께 합니다!

간편 키오스크



드림1004

(DREAM-1004)

마음과 정성을 담은 금융(카드) 결제 시스템

- *32인치 대형 모니터로 시각적 편안함
- *이동바퀴 설치로 편안한 이동성
- *한 눈에 들어오는 쉽고 편안한 현금종류
- *뛰어난 내구성과 완벽한 A/S 지원

교회소식, 각 성전 사진을 배경으로 하여 기명·무기명 각종 현금
구분이 편리해 마음을 담은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결제 수단 지원 카르디아 시스템이 제공하는 통합형 드림
1004 키오스크 단말기는 모든 신용카드결제, 체크카드, 모바일카드결제, 간편결제
(삼성페이) 등 국내의 모든 주요결제수단을 지원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드림1004 키오스크는 카드 (금융)결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무기명·기명·광고 및 교회소식(관리자 수시 변경가능) 다양한
현금 프로그램으로 편리하고 간편하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섬기며 나누는 기업
카르디아(주) 금융결제시스템 스마트사업부
032)818-0691, 010-2650-8044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되라’(잠 22:29) 주제로

2023 여교역자국 하계세미나 및 야유회

2박 3일간 평창벤엘수양관에서 열려

백영자 목사
전국여교역자국장

대림벤엘교회 평창수양관

김병목 목사
총회장정부용 목사
정책위원신재영 목사
직전총회장백영자 목사
여교역자국장탁정신 목사
여교역자국 전임국장한순남 목사
여교역자국 자문

전국여교역자국(국장 백영자 목사) 2023 하계세미나 및 야유회가 지난 6월 19일(월)~21일(수) 2박 3일간 대림벤엘 평창수양관에서 열려 이단 사이버가 교회 안에 깊숙히 침투해 오고 있고 종교다원주의와 차별금지법으로 포장한 동성애 등으로 한국교회를 무너트리려는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고 바른 복음전파를 위해 사명감당을 다짐하며 사랑과 인내, 열정과 희생으로 땅 끝까지 성경대로의 바른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되라’(잠 22:9) 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여교역자들은 여러 순서를 통해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지금 우리나라와 교회가 처한 현실에 대한 바른 상황 인식과 함께 시대적 사명감으로 충만하여져 교회지도자답게 처신하며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할 것을 다짐했다.

하계세미나 및 야유회는 첫날인 19일(월) 오후 4시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사흘간의 일정이 시작되었다. 이날 개회예배는 교단 전국 여교역자국 예배부장 조병희 목사의 사회로 시작, 사회자의 성경봉독, 부산지방회 여목회자 회원들의 특송, 교단 총회장 김병목 목사(금산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잠 22:29 말씀을 본론으로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케 된다. 또한 자기 일에 능숙한 사역자들이 되어서 크게 쓰임받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강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역자들이 되어야 하고 무슨 일이 주어 지든 충성을 다해 일하되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것”을 강조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이어 전국여교역자국장 백영자 목사는 그동안 교단과 여교역자국의 발전을 위해 헌신에 주신 고분 정부용 목사(교단 정책위원

대림벤엘교회 담회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노고와 헌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날 예배는 김병목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뜨겁게 찬양하며 나라의 안보와 교회를 위해 기도했다.

여교역자들은 성령충만을 사모하며 뜨겁게 찬양한 후 개회예배 설교와 부흥회, 새벽예배 설교시간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 기간 동안 폐회예배는 정부용 목사의 설교, 첫날 저녁 집회는 직전총회장 신재영 목사의 설교, 둘째날 저녁 집회는 여교역자국 백영자 목사의 설교, 새벽예배에는 전임국장 탁정신 목사 와 자문 한순남 목사의 설교가 있었다.

이후 회원들은 여교역자로서 목회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사역의 모습들을 간증을 통해 서로 대화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

고 힘이 되었다.

여교역자국장 백영자 목사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므로 이 땅의 복음화를 이루어 기쁜데 큰 힘이 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됨을 감사했다.

여교역자국 회원들은 시간마다 설교와 말씀을 통해 사명을 일깨웠으며 성령의 역사로 큰 은혜를 받아 목양지에서도 더욱 힘을 얻어 바른 복음전파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둘째날 회원들은 정선레일비크 풍경열차와 용평스카이(발왕산 케이블카) 등지에서 열린 여행 일정에 함께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사람이 가득한 회원 간의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셋째날 폐회예배(정부용 목사 설교)에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후에 평창수양관에서 정성껏 준비한 점심(공국수)을 맛있게 먹고 모든 일정을 마치고 각자의 목양지로 향했다.



제73주년 6.25 국가기도회 및 특별세미나

국가의 위기상황에 나라를 지킨 숭고한 정신 기려



이광목 목사
사)대한예수교장로회
총연합회 대표회장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광목 목사)는 지난 6월 23일(금) 오전 10시 30분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625 73주년을 맞아 제73주년 6.25 국가기도회 및 특별세미나를 갖고 국가의 위기상황에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이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모두가 한바탕 되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공동준비위원장 안병삼 목사의 사회로 참석자들 모두가 합심하여 국가와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 6.25를 상기하면서 합심하여 기도를 하고 대화장 이광목 목사의 대회사, (사)예장총연 법인이사원동인 목사의 대표기도, (사)예장총연 서기 김영복 목사의 성경봉독, (사)예장총연 법인이사 김순중 목사의 특송, 예장합동전국연합 총회 임원일동의 찬양, 전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최희범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최 목사는 잠 29:18 말씀을 본문으로 “다시 하나 님께로!” 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6.25와 같은 민족 상잔의 아픈 상처를 기억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며 총력 안보태세를 갖추는데 우리의 하나 된 기도를 통해 악인의 도



모가 허사가 되고 쪼여 지게 될 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전하고 “어려움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을 강조한 뒤 항상 이를 위해 헌신해 온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 특별기도로 법인이사 김병선 목사의 ‘대한민국 국가와 남북통일을 위해’, 법인이사 지광식 목사의 ‘대통령과 정계 지도자들을 위해’, 상임회장 이후현 목사의 ‘국가안보와 사회, 경제발전을 위해’, 예장합동보수 총회장 차요한 목사의 ‘WCC와 신앙혼합주의 및 이단들의 패망을 위해’, 상임회장 오선미 목사의 ‘한국교회와 말씀개혁과 성령충만을 위해’, (사)한부연 법인이사 하석수 목사의 ‘(사)예장총연과 본 대회 국가기도회를 위해’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이어 CTS 기독교TV 사장 최현탁 장로와 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대표회장 김원식 목사의 축사가 있었으며 (사)한부연 법인이사 권혁은 목사의 헌금기도 후 2부 세미나로 이어졌다.

세미나에서는 전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박형용 박사의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강의를 이어갔다.

이어 이광목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 나라의 분단의 원인과 6.25의 배경과 피해를 살펴보고 이 땅에 다시는 이같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참전 용사들의 용맹을 기리고 평화통일을 이루는데 밑거름이 될 것을 강조했다.

이날 예배는 (사)예장총연 고분 김기형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챗 GPT와 한국교회’ 주제 2023 리더십

미래목회포럼콘퍼런스, 바른 사용과 판단 근거 잘 활용해야

한국교회의 미래를 여는 바른 생각 미래목회포럼(대표 이동규 목사, 이사장 이상대 목사)은 지난 6월 26일(월)부터 28일(수)까지 제주 오드리인호텔에서 ‘챗 GPT와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2023 리더십 콘퍼런스를 열었다.

미래목회포럼은 이번 2023 리더십 콘퍼런스에서 전 세계에 일고 있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지켜야 할 신앙과 교회본질은 과연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적용할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컨퍼런스는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2박 3일간 세미나와 제주 생태 탐방 등으로 열렸다. 첫날 개회에 배는 김희수 목사(간사)의 사회, 설동주 목사(다음세대 본부장)의 기도, 대표 이동주 목사는 인사말에 이어 시

3:1-8 말씀을 본문으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며 챗 GPT와 같은 양날의 검과 같은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을 직시하고 바른 사용과 바른 판단을 근거로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준 목사(지도위원)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세미나가 곧바로 이어져 안종배 교수와 김세준 교수를 주강사로 박동찬 목사, 임시영 목사, 윤용근 변호사, 김봉준 목사, 김민섭 목사, 추태화 교수, 김기배 목사, 박재신 목사, 송용현 목사, 장이규 목사, 소항하 대표, 유진성 목사, 김영길 목사 등이 열린 토론을 통해 한국교회의 미래를 여는 바른 생각으로 챗 GPT와 같은 양날의 검과 같은 새로운 도구를 잘 활용해 나가야 한다는 데 초점을 모았다.



“충남인권조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행동하는 양심 충남 도민 300여 명은 지난 6월 26일(월) 충청남도 의회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포함하는 학생인권조례의 전면폐지를 촉구했다.

충남인권조례 및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이

날 집회는 충남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김종우 목사)가 주최하고 충남바른인권위원회(대표위원장 박귀환 목사)가 주관한 가운데, 당진 아산 보령 우리아이지킴이 학부모연대, 웅은가치서천학부모연대, 전곡학부모연

합 등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며 뜨거운 함성을 토해냈다.

이날 박귀환 목사는 대독한 성명을 통해 “충남학생인권조례는 비교육적인 조례다”라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 제2조에 의하면 유지원생부터 적용이 된다고 충

청학생 간에 성관계를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 지난 회기에 충청남도 도의원들이 만들어 놓고 교육감이 지지하는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이다”라고 고발했다. 그러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 제15조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동성애와 성전환을 포함하고 있다”며 “남녀 학생 간의 성관계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면 동성학생간의 성행위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위헌행동을 권리라며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대법원은 학생의 권리가 교육목적상 제한될 수 있는 판결을 지속하고, 학생들을 규율하는 것이 공공육의 당연한 사명이라고 보정해 오고 있으나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들을 학생들의 억압자라 전제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훈육행위에 대해 학생들이 교사를 고발하는 것으로 대응하게 유도하고 있다”면서 “학생이 교사를 존중하지 않고 교사와의 관계를 왜곡하여 학교 내에 무질서를 증가시키는 조례”라고 비판했다.

〈6.25 전쟁에 대한 올바른 인식〉, 논평문

6.25전쟁은 김일성이 주도하고 스탈린과 마우쩌둥의 원조 아래 일어난 국제적 침략전쟁이다

올해는 6.25전쟁 73주년이 되는 해이다. 6.25전쟁 73주년 행사를 하면서 우리는 6.25전쟁이 왜 일어났는지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겠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한다. 그만큼 과거의 사건을 통해 올바른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망각하는 민족에게는 과거의 불행이 되풀이된다는 준엄한 경고의 말이다. 우리가 6.25전쟁 73주년 행사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낙동강 전선의 존망의 위기에 몰렸다가 유엔군의 도움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낸 6.25전쟁의 뼈아픈 교훈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우리나라의 장래를 공산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지키겠다는 다짐을 해야 하겠다. 6.25전쟁은 북한의 김일성이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마오쩌둥의 도움을 받아 한반도를 공산화하려고 일으킨 국제적인 침략전쟁이다. 과거에는 6.25사변이라고 불렀으나, 최근에는 6.25전쟁이라고 부르고, 일부 학자들은 한국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살펴내면 6.25전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고자 6.25전쟁의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로로 논평을 발표한다.

1. 1980년대 이전에는 북한이 남한에 대한 기습적 남침설이 6.25전쟁에 대한 전통적 설명이 지배했다.

6.25전쟁은 1980년대 이전에는 팽창주의적인 공산주의 소련이 북한을 조종하여 대한민국을 침략하여 일으킨 남침전쟁이라는 외인론에 입각하여 설명되었다. 당시 대한민국은 북한의 침략을 막아낼 군사적인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북한은 다량의 소련제 무기를 공급받은 상태에서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에 기습적으로 남침을 감행하였다. 당시 북한군은 20만 명의 병력에 소련제 T-34 탱크 242대와 170여 기의 전투기를 포함하여 200대에 달하는 공군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군은 10만 명의 병력에 20대의 훈련기와 연습기가 전부였으며, 탱크와 전투기는 전부하여 북한의 침략을 막아낼 수가 없었다. 이와같이 6.25전쟁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은 6.25전쟁이 소련의 팽창정책에 의해 조종받은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이라고 설명하였다.

2. 1981년에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전쟁의 기원’이 수정주의 이론을 탄생시켰다.

1981년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 1943-)의

『한국전쟁의 기원』(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1981, 김지동 역, 일월서각, 1986)이란 책이 저술된 후에 6.25전쟁에 대한 소위 수정주의설이 대두되었다. 브루스 커밍스는 한국전쟁에서 내적 요인을 강조하였다. 그는 6.25전쟁을 일제 강점기 이후부터 해방정국까지 지속된 한국 안에서의 계급적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남한을 해방시키고자 일어난 내전 성격의 전쟁이라고 보았으며 미국은 전쟁 유발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커밍스는 한반도에서의 좌익과 우익, 지주와 농민,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무력충돌이 빈번했으며, 대구 10.1 폭동사건, 여수·순천 반란사건, 제주 4.3 사건, 38선 지역에서의 크고 작은 국지전 등을 감안하면 1945년부터 전쟁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것과 다름이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먼저 발포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지를 펼쳤다. 6.25전쟁에서 북한의 남침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남한의 좌우투쟁이 마침내 남북의 직접대결의 내전으로 발전했다고 주장하는 브루스 커밍스의 이러한 입장을 수정주의라고 부른다.

3. 1980년 후반부터 우리나라 좌파 학자들과 운동권은 수정주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우리나라의 좌파 학자들과 운동권 영역에서는 이러한 브루스 커밍스의 수정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이들은 해방공간에서 남한에서 좌파 세력이 우세했다고 주장하면서 브루스 커밍스의 남한에서의 좌우투쟁설과 그로 인한 김일성의 남침 유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북한의 침략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1980년대 후반에 전쟁의 원인으로 일제하 사회경제적 모순 기원설, 미국의 남침유도설, 남한의 소규모 북침설 등이 유행하면서 좌파 운동권에서 퍼뜨린 민족해방을 위한 내전이라는 6.25전쟁에 대한 인식이 한국사회에서 확산되었다. 특히 강정구는 6.25전쟁을 북한 지도부에 의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하였다

4. 1991년 소련 붕괴 후 공개된 소련의 6.25전쟁 관련 극비문서는 6.25전쟁이 김일성이 주도하고 소련과 중국이 원조한 전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다.

이러한 수정주의는 1991년 소련 붕괴 후에 6.25전쟁에 관한 소련의 극비문서가 해제되면서 허구라는 것

이 밝혀졌다. 김일성은 1948년 9월에 북한한반에서 북한의 수도를 서울로 정하여 적화통일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으며, 38선에서 일어나는 소규모 충돌을 빌미로 소련으로부터 대량의 현대식 무기를 획득하였다. 그리고 스탈린에게 남침의 허락을 요청했으나 소련은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거론하며 거절하였다. 그러나 스탈린은 1949년 10월 중국이 공산화되고 1950년 1월 12일 미국의 극동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한 애치슬라인이 발표되자, 지금까지 거부했던 김일성의 남침 계획을 1950년 1월 30일에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

마우쩌둥이 2월 15일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스탈린은 마우쩌둥에게 의견을 물었고 모택동은 “우리는 당연히 김일성을 도와야 한다”라고 대답하였다. 마우쩌둥은 3월 20일에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이던 조선인 병사들 가운데 14,000명을 집결시켜 독립 15사단으로 개편하여 북한으로 파병하였으며 3월 말에 원산에 도착했다. 이 부대는 6.25 전쟁시에 인민군 제 1사단이 되어 북한의 동부전선 남침공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5. 김일성은 1950년 4월 10일 소련을 방문하여 스탈린의 최종 승인을 얻었다.

김일성은 1950년 4월 10일, 박헌영과 같이 모스크바를 비밀리에 방문하여 스탈린을 만났다. 이때 박헌영은 남한에 있는 20만 명의 공산당원들이 북측의 첫 신호에 맞춰 봉기할 준비를 이미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김일성은 미군의 전쟁 참전 여부에 관해서 네 가지 이유를 들어 미국이 참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첫째, 기술적인 공적으로 3월 이내 승리를 확보할 수 있다. 둘째, 20만 명의 남조선 공산당원의 봉기가 있을 것이다. 셋째, 남한 각도의 유력대가 조선인민군을 지원할 것이다. 넷째, 미국은 참전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 이러한 설명을 들은 스탈린은 4월 10일 김일성의 군사적 공격을 최종 승인하였다. 그 후에 소련은 2차 대전에 사용되었던 무기들을 대량으로 북한에 보냈다.

6. 미국은 6.25전쟁 이전에는 대한민국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았고 전쟁 발발하자 유엔을 통한 적극적인 전쟁 지원을 시행하였다.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기지를 낮게 평가하

여 1949년 6월 30일까지 미군을 완전 철수하였다. 더 나아가, 북진통일을 호언하는 이승만을 견제하기 위하여 한국군 건설에 필요한 무기조차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6.25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군은 탱크를 비롯한 한국을 방어할 무기들을 전혀 보유하지 못하였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유엔 안보리는 당일에 신속하게 이 문제를 논의하여 찬성 9, 기권 1(유고), 불참 1(소련)로 결의문 제82호를 채택하였다. 즉 안보리는 결의문에서 “북한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적대행위의 즉각적인 중지과 북한 당국이 그 군대를 38선 이북으로 철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북한의 반응이 없자 6월 27일 안보리는 다시 결의문 제 83호를 채택하고, “무력공격의 격퇴와 그 지역에서 국제평화 및 안전의 회복을 위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원조를 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하였다. 이 결의문들은 유엔 헌장에 따른 집단안보를 발동한 것으로 유엔의 6.25전쟁 개입은 이러한 집단안보제도가 본격적으로 그리고 전형적으로 적용된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유엔결의안 하에서 유엔회원국의 군사적 참여가 전쟁발발 즉시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6월 27일 미군을 시작으로 연합군의 참전이 시작되었다.

유엔은 유엔의 결의로 건국되었고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했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16개국에서 34만 1천명의 유엔군이 참전하였고, 미군 36,492명을 포함하여 40,869명의 유엔군이 전사하였다. 이 외에 의료지원국 5개국, 물자나 재정지원국 39개 등 총 62개국에 우리나라를 지원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들의 지원에 감사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부산에 유엔기념공원을 조성하여 전몰유엔군들을 안치하고 있다. “죽으면 부산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긴 프랑스 참전 용사 레몽 베르나르씨를 시작으로 2015년 5월부터 최근까지 19명이 사후 안장되었다. 1974년부터 11국 주한대사들이 공동관리하고 있다.

7. 이승만 대통령은 한반도 전쟁을 막고 평화보전을 위해 한미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협정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군사

적 동맹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인식하였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하여 미온적이었다. 그러므로 이승만은 반공포로석방을 비롯한 다양한 압력수단과 외교정책을 병행하여 마침내 한미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1954년 10월에 한미방위조약이 발효된 이후에 한국은 지난 70년간 장기적인 평화를 누리게 가운데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룰 수가 있었다.

8. 우리는 6.25전쟁의 성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3가지 큰 교훈을 얻어야 하겠다.

6.25전쟁은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얻어 남한을 공산화하고자 침략한 국제적 침략전쟁이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6.25전쟁을 조국해방전쟁이라고 부르고 중국은 항미원조전쟁이라고 부른다. 미국에 항전하고 조선(북한)을 원조한 전쟁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침략전쟁에 맞서 유엔군의 원조를 받아 나라를 수호한 방어전쟁에서 승리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켰다. 그러므로 6.25전쟁은 국민의 연합된 힘과 유엔군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이 방어에 성공한 전쟁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전쟁에서 승리한 전쟁으로 기억되어야 하겠다.

우리는 6.25전쟁에서 다음의 세 가지 큰 교훈을 얻어야 한다.

첫째, 평화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확실한 군사력과 나라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단결된 의지가 필요하다.

둘째, 미국과의 밀의동맹을 통한 확실한 전쟁억지력의 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신이 절실하다. 이승만 대통령은 6.25전쟁 전에 미국으로부터 전쟁억지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북진통일을 주장하여 미국의 원조를 받지 못한 것이 6.25전쟁 초기의 비참한 패배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므로 오늘날 북핵의 위험이 증대되고 고도화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더 나아가 일본과 연합하여 북핵에 대한 확실한 전쟁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6.25전쟁에 대한 올바른 실상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면서 전쟁을 막고 평화의 길을 확보해야 하겠다.

2023년 6월 23일
실용을 꿈꾸는 나비행동

한장충, 독도 나라사랑 기도회 개최

국토수호위해 헌신하는 경비대도 격려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이하 한장충)는 지난 6월 19일(월)부터 21일(수)까지 독도에서 '나라사랑 기도회'를 갖고 소중한 우리 국토 독도 수호를 위해 한마음 되어 기도했다.

한장충 기도운동위원회(위원장 김종선 목사)에서 주관하는 나라사랑기도회는 성경에 근거한 나라사랑의 의미를 새기며, 독도를 방문하여 경비대를 격려했다.

국토 수호를 위한 나라사랑 기도회는 6월 19일(월) 오후 7시 울릉도 동광교회에서 기도운동위원회 서기 정인호 목사(대신 총무)의 인도로, 상임회장 천환 목사의 '독도를 재인식하라!' (산 33:18-19)라는 제목의 설교, 공동회장 모종운 목사(애혁총연 총회장)의 기도,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합심기도 시간에는 '북녘 마을

마다 예배당이 세워지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기도운동위원회 위원 김형수 목사가, '남북한이 군사적 대치에서 벗어나 평화통일로 나가게 하소서' 기도운동위원회 전문위원 이미숙 목사가, '다음세대가 통일의 당위성을 깨닫게 하시고 동질성을 회복하게 하소서' 합동복구 총무 소병기 목사가,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개혁총연 총무 김외호 목사가 각각 기도를 인도했다.

20일 오후 2시 30분 독도를 방문해 진행한 '독도기도회'는 한장충 기도위원장 김종선 목사의 사회로 상임회장 천환 목사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기도를, '한국교회의 하나됨과 주권과 국토수호를 위해' 기도한 후 통성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후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의 기도로 독도기도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했다.



생신잔치 및 장학생 자원봉사단 워크숍

사)월드뷰티핸즈,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쪽방촌과 독거어르신 및 거동이 불편한 독거어르신을 섬기는 구조개발NGO (사)월드뷰티핸즈(회장 최에스더 신한다 K뷰티학과 교수와 K뷰티소사이아터연구소(KBSI)는 (사)해돋는 마을 이사장 정현일, 신생명나무교회 목사)와 협력하여 대흥동 엘드림노인대학에서 쪽방촌과 독거어르신을 위해 '사랑의 생신잔치 및 LBTQ(대표 Julie Duval) 장학생 자원봉사단 워크숍'을 갖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사)해돋는 마을 이사장 정현일 목사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외롭고 소외된 어르신 분들께, 사랑의 밤나눔과 함께 LBTQ 음악장학생인 박명훈 군이 맨 하단 음대에 찬양과 아리랑 등 비올라 연주로 큰 감동

을 준 것과 청년자원봉사단 청년들이 고독사제로 프로젝트에 동참하여 밤나눔 봉사로 섬겨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사)월드뷰티핸즈 장민혁 사무총장(KBSI 연구원)은 봉사단에게 치매와 고독사 예방과 함께 고독생 관점에서 엘드림노인대학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자원봉사의 필요성과 함께 특별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께 청년자원봉사자와 현장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고 안부와 함께 말벗이 되어 섬겼다.

이날 최세진 영양사와 최세진 사무국장(해돋는 마을)이 LBTQ청년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밤나눔 봉사도 섬겼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우산 속 전도열매

단비에 온산아가 목마름을 해결하듯
성령의 단비에 목마른 심령 은혜로 적시네.
오늘의 믿음의 용사를 부르셔서
사명 감당케하시네.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영혼
주의 선하신 능력으로 교회 삼으시고
주예수를 믿으라,
그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곳 구원의 방주, 생명을 주셨네.
나수가 비위를 뚫듯
지금의 미미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보라 지금 은혜받을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박다니엘 목사님,
오늘 전주에 햇빛 교회 세우셨네.

여리고도상 강도 만난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 삼으셨네.
오 주여 당신의 불타는 사랑의 심장 주소서.
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상처받은 이시대의 아픔 치료하게 하소서.
상처받은 이시대의 생명 구원하게 하소서.
구원하게 하소서.

가족세트전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땅에 떨어진 전단지들 보고 찾아온 천사를
전도 훈련받게 하고
원장님과 같이 전도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또 한분은 동영상에 나타난 모습과
원장님이 똑같다며
교회 등록을 하고
원장 목사님 차도 사드리고
감사 목사님께도 양복을 사주셨다며
본인이 한 말은 꼭 지킨다고 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문과 매개체를 통해서도
아팠든 한사람, 한사람,
전도 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린다.

비가 쏟아지는데도 아랑곳 하지않고
겉옷이 흠뻑젖도록
한 영혼 한 영혼,
오로바이 탄 청년 전도 영접기도와 구원!

가족세트전도 구원열차는
오늘도 내일도 주님 차장 되시어
복음의 햇살을 들고 전도의 깃발을 쫓는다.
가족세트전도 총괄본부장 이수 교수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대표총재
문화선교TV방송대표 박영수 목사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031)592-1691, 010)3730-2573

‘생명과 나눔’ 제21회 사랑의대 음악회 성료

사랑의장기기증운동 “장기기증 운동에 새로운 활력”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본부, 이사장 박진탁) 전북지부가 6월10일,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21회 사랑의대 음악회 ‘생명과 나눔’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매년 감동적인 공연을 통해 장기기증의 소중함을 알리고 있는 ‘사랑의대 음악회’는 올해로 21회를 맞이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공연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했다.

이번 음악회 주제는 ‘생명과 나눔’으로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움츠러든 생명나눔 운동에 희망의 불을 지피자는 바람을 담고 있다. 부제인 ‘다시사는 세상, 함께 나누는 생명 - 나로부터 시작되리’는 장기기증인의 숭고한 사랑을 기억하며, 장기이식만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새 생명을 전하자는 바람을 표현했다.

이에 이번 음악회에는 생명나눔을 직접 실천한 생존 시 장기기증인과 뇌사시 장기기증인 유가족 및 생명나눔을 약속한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및 후원자들도 대거 참석했다. 이번 아니라 지역 내 장기기증 운동 활성화를 응원하는 자원봉사자와 지역인 등도



자리해 총 600여 명이 공연장을 가득 채우며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생명나눔의 메시지가 널리 퍼져가기를 염원했다.

전라북도지사이자 전북지부 홍보대사인 김관영 도지사는 “장기기증은 생의 마지막 순간 다른 사람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는 귀중한 나눔”이라며, “음악회를 통해 장기기증 운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사회 곳곳에 생명나눔의 희망이 피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사장 박진탁 목사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생명나눔의 기적과 희망을 만들어 가는 사랑의대 음악회를 통해 침체된 장기기증 운동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지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악회를 기획한 전북지부 본부장 문병호 목사는 “생명나눔 운동 활성화를 위해 함께해 주신 군산시와 시 끝까지 흘러보낸 감동적인 공연이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굿네이버스 서울남부지부 두그루아동청소년상담센터와 협약

굿네이버스 서울남부지부(지부장 정종훈)는 지난 6월 21일(수) 두그루아동청소년상담센터(대표 송명환)와 함께 좋은이웃센터 협약 및 좋은이웃센터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

‘좋은이웃센터’는 지구촌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정기후원에 동참하는 굿네이버스 대표 나눔 캠페인으로, 후원에 참여하는 센터는 국내

외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꿈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굿네이버스 서울남부지부는 심리치료센터를 통해 지역 내 위기가정 아동을 발굴하여 심리치료비를 포함한 다양한 사례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두그루아동청소년상담센터도 위기가정의 아동을 연계해 도움을 주고, 해외아동결연을 통한 정

기적인 후원에 동참하게 된다.

정종훈 굿네이버스 서울남부지부장은 “아려운이웃을 위해 나눔에 동참해주신 센터들에게 감사드리다”며 “앞으로 지역기관과 더욱 협력하여 위기가정 아동을 발굴하고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이 더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02.569.2040 굿네이버스 서울남부지부

홈페이지 www.lovehousecare.com ·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홈페이지 www.lovepn.com

노인 장기요양시설 경기도 이천 사랑의집

어르신을 내 가족처럼 내 부모처럼 모시겠습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흥열 목사입니다. 사랑의 집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치매, 중풍, 당뇨, 관절염, 파킨슨병, 노인성질환 및 독거노인, 장·단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전문적인 돌봄에 있는 요양시설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는 내집같은 곳입니다. 깨끗한 시설과 쾌적한 주위 환경...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으며, 풍부한 경력의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여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민들의 경제를 생각하여 저렴한 요양비로 모시고 있으니,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집에서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집 원장 박흥열 목사



오성사랑교회(담임 박흥열 목사)



■ 사랑의집 연혁

- 2009. 07. 10 사랑의집 개원 (9인 시설 공동생활가정)
- 2011. 07. 27 사랑의집 신축건물 준공
- 2011. 11. 23 사랑의집 (15인 시설 인가)
- 2014. 02. 10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봉사단체 설립)
- 2019. 09. 23 사랑의집 (20인 시설 인가)
- 2020. 05. 11 사랑의집 (29인 시설 인가)



■ 사랑의집 시설장

(박흥열 목사 수상경력)

- 2007. 10. 3 이천국회의원 표창
- 2014. 12. 13 이천시장 표창
- 2016. 02. 18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2019. 09. 2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표창
- 2020. 12. 18 이천시장 표창



요양보호사 모집

사랑의집 연락처 : 031-643-40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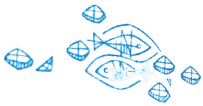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읍면 금율로 828번길 198-50

010-2217-4489 010-8732-4489

마음으로 생각 깊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연론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성교회

국가를 지키는 이들을 귀히 여겨야



역사가 교훈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비극적인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 비극적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국방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군인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국가는 위험합니다. 최근 NTD TV가 의미 있는 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한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를 경찰차가 추격하며 정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차를 운전하던 사람은 휴가 나온 젊은 병사인데 길가에 차를 세우면서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전혀 신호위반이나 운전법규를 어기지 않았는데 경찰차가 왜 나를 세우려는 것일까?

다가온 경찰은 병사에게 휴가 나왔느냐고 물었습니다. 병사는 그렇다고 말하며, 자신은 이라크에서 15개월 동안 전쟁에 참전했으며 지금은 휴가 중에 귀국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찰은 이 병사를 외곽 길에 안고는 한없이 눈물 흘리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 아리둥절해하는 병사에게 잠시 후 경찰이 말했습니다.

“나의 이들도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는데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당신을 보는 순간 전쟁터에서 죽은 나의 아들과 똑같다는 생각에 당신의 차를 따라왔습니니다.”

사실 이 병사도 전쟁 중에 받은 마음의 상처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이었습니니다. 두 사람은 짧은 만남 속에서 서로의 슬픈 마음을 치유 받았다고 합니다. 중동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동전쟁이 한창

이던 때 한 사람이 군복차림으로 이코노미 석에 앉아 있었는데,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 1등석에 앉아 있던 손님이 다가오더니 병사를 향해서 거수경례를 하고는 자신의 1등석으로 옮겨 앉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명령을 받아 목숨 걸고 임무를 수행하는 병사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전역한 군인들은 자신의 자동차 뒷 유리에 자신이 군복무 했던 부대의 상징을 표시하고 다닙니다. 자신의 집 마당에 성조기를 세우는 일은 너무도 흔한 일입니다. 미국은 직업군인으로 운영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에 대한 존중이 이 정도입니다. 군인으로 복무한 일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는 건강한 젊은 남자는 예외 없이 모두 군대에 가는 징병제의 나라입니다. 돈을 위해서 군대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국을 지키라는 국가의 부름으로 신성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고마움과 존중심은 모병제의 나라, 즉 직업군인으로 국로를 지키는 나라보다 더 귀히 여기고 존중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가안보가 중요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군인들은 우리들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의 어깨에 국가의 안위가 달려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명이 달려있습니다. 군인들을 귀히 여기는 풍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 나이다” (시 119:9)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그리움의 실체를 찾아서...

우주만물은 그분의 계획대로 운행되고

창조주 하나님과 행복했던 에덴동산의 시간들은

본능적 그리움이 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 헤맨다.

(행 17:27-28)

사람이 사는 곳곳.. 어디에라도

그리움의 실체 찾아 두려움을 달래려는 혼적들..

태양과 달과 별 그리고 산과 돌과 나무에 비는 사람들

에덴동산 물들이 어둠의 세력 지금도 끼어들어

결결로 가길 행방 하여도 함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를 그 누가 막을존가!..(롬 8:28)

거친 광풍 일으켜 모든 관계 항클어뜨려도

우선순위 바로하면 놀랍게 세워지는 생명의 질서들

그리움의 실체는 바로 바로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



사람들은 누구나

전지전능한 신을 찾아헤맨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주신 분..

그분과의 만남은 소멸되지 않는 기쁨 그 자체이다.

사설

환부는 도려내야 새살이 돋아난다

조 과학이 판치는 21세기 세상이지만 아직도 지구는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지구가 태양을 도는(지동설)게 아니라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천동설) 믿는 허황된 사람들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세상이다. 광우병, 천안함, 사드, 목각지뢰, 연평해전 등이 여러 가지 정황과 과학적 조사로 인해서 괴담과 가짜뉴스로 판정됐지만 못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6.25 전쟁도 남쪽에서 북한을 침략했다고 믿는 북침설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연색할 따름이다. 이밖에 사료잡힌 교사에 의해서 일 부 학교에서도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할 때마다 ‘하니 뭐 저런 사람들이 있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과거 이 나라를 한번도 경험해 본적이 없는 나라로 정상이 아닌 반신불수로 만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상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이었을까라는 생각에는 고개가 갇혀들선다. 공직에 있을 때 사용하던 것들을 공직에서 물러나면 그대로 두고 물러나는 게 정상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쓰던 것이라고 공직에서 물러났어도 사용하던 그 집기들을 가지고 집으로 간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얼마 전 조국 전 장관이 평산 책방(한 달 수입이 2억 5000만원)에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서 차담회를 했다. 그때 올라온 집기들에는 청와대 문양들이 그대로 적혀 있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글을 올렸다. 알고 보니 환경 규모가 소소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저에서 사용하던 가구와 집기류가 지난해 4월 3주에 걸쳐서 양산으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가짜뉴스가 아니다. 보통 하루면 끝나는 이사에 3주가 걸릴 정도로 옮긴 많은 이삿짐은 본인의 월급으로 산 게 아니라는 뜻이다. 모두 다 국가에 신으로 구입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물품관리법 적용 대상이다. 본인이 사적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뜻이다. 지난 정부의 도덕적 해이와 몰염치의 예산 독식과 낭비는 그 규모와 방법이 허를 찌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은 상임위원장 교체가 확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과광위에 예정된 해외 시찰 경비 예산 5000만

원을 전부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미 보도가 된 사실이다.

이런 것은 패악에 해당되는 죄목이다.

단테의 신곡에서 공직자의 위선과 무능, 나태와 방관을 큰 죄, 용서받지 못할 죄로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과거 5년 동안 국가 예산은 눈 먼 돈이 되어 있었다. 먹는 게 입지였다. 선관위의 부패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다. 지식을 채용하여 대를 이어 세금으로 먹고 살려다 적발되어 사달이 났다. 보조금 314억 원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282억 원이 부정 사용됐다(감사원발표).

탈원전과 태양광 사업은 복마전이였다. 공공기관 8곳 임직원 260여 명이 본인이나 가족 이름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보조금을 나눠 가졌다(감사원발표). 이권 카르텔이다. (내)사람이 먼저다의 표본들이 됐다. 그 결과 수십조 원의 손실을 국민에게 떠 넘겼다. 폐가(도 모르탈레(용서받지 못할 죄-대죄)이다.

그대로 둔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이런 부패를 단호하게 척결해야 희망이 솟구친다. 국민들은 과거 정권을 향해서 ‘이게 나라냐’라고 했다. 척결해야 한다고 요구동성으로 말했다. 그래서 검찰총장 출신을 대통령 자리에 앉혔다. 과감하게 척결하리라 생각해서였다. 만만치 않은 저항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죄고우면 말고 과감하게 척결해야 이 나라에 희망이 살아난다.

과거 정권은 5년 내내 적폐청산이라며 수많은 고위직 인사들을 감옥에 처넣었다. 전·현직 대통령 두 명을 한꺼번에 감옥에 처넣기까지 했다. 그때의 일은 부당하게 한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확실하게 드러난 건만 해도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 머뭇거리길 이유가 없다. 환부는 도려내야 새살이 돋아난다. 고통이 살 되지 않는다. 고통을 켜내지 않으면 사람만 고생하고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만 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자기 양심이 확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딤후 4:2) 양심이 모두 불에 타 없어져 불의와 죄에 무감각해지고 거짓말을 일삼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심 없이 거짓으로 쌓은 부와 명예, 권력은 결국 허망하게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성경은 경고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무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보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리다!”(눅 6:25)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몽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홈페이지 : www.ucts.org

A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2023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여학생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를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 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신입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2. 제출서류(각 1통)

-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신입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여학생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 www.ucts.org

A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2023학년도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인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독양일립.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02-2632-069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7205
- 홈페이지 : www.ucts.org,
e-mail: ucts5181@naver.com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 의 용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① 원서 교 부 : 수시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③ 원서 접수 : 수시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① 전형료 : 30,000원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본) 1부

- 기독교관계증명서(호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자격 증명서 1부(해당자)

6.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인터넷 뮌.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 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